

빼어난 절경 담아낸 선조의 예술

박은순 지음 《금강산도 연구》

빼어난 절경과 맑은 정기, 생동하는 기운을 품은 금강산은 이제 우리에게 전설처럼 전해질 뿐이다. 중국인도 한번 가보기가 평생 소원일 만큼 명성이 높았던 금강산을 찬탄하고 경외하며 남긴 시와 그림은, 그 시대의 뚜렷한 예술흐름을 이루기도 했다. 조선 특유의 문화와 사상을 담은 진경산수화 중단일체제로는 가장 많은 작품이 전해지는 금강산도를 통해 우리는 마음 속에, 역사 속에만 존재하던 금강산을 이해할 수 있다.

뉴욕 주립대 한국학연구소의 객원연구원인 박은순(39)씨가 최근 펴낸 《금강산도(金剛山圖)연구》는 보지도 만질 수도 없는 금강산을 살아 있는 실체로서 더듬어보게 한다. 이 책은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제작된 금강산도의 성격과 내용, 제작배경, 화풍의 특징과 회화사적인 의의를 밝힌다. 특히 금강산에 대한 선인들의 인식변화, 신앙과 관조대상으로서 금강산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금강산을 중심으로 한 당대 문화와 미술의 성격을 뚜렷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금강의 순례 끝에 남긴 시·서·화

금강산은 계절에 따라 봄에는 금강, 여름에 봉래, 가을에 풍악, 겨울에 개골이라 불렀다. 그 가운데 개골은 날카로운 기암절벽과 빼어난 듯한 뾰족한 봉우리를 빚은 가장 오래 이름이다. 수려한 풍치를 기리는 '풍악'은 문인들이 애호했고, '구원의 성지'란 뜻의 불교에서 유래한 이름 '금강'은 민간이 즐겨 불렀다.

"금강산을 한번 보면 죽어서 악도(惡道)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영험을 믿어 고급관리부터 평민까지 순례의 길이 이어졌고, 그 명성은 중국에도 퍼져 승려들이 다뤄 다녀갔다. 순례와 여행이 지나쳐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았으나, 문인화가들은 기행문과 그림을 남기고, 서민들은 금강산 일만 이천 봉마다 쌀 한섬 무명 한필, 돈 일천냥씩 시주하며 기원했다.

예부터 산천을 존중했던 선조들은 금강산의 걸출한 웅장함과 장한 기세에서 도의와 사물의 이치를 깨달았고, 그 소산으로 문학과 시서화를 발전시켰다. 조선 중기에 가사체의 기행문학이 출현한 이후 조선시대에는

우리에게 전설처럼 전해지는 금강산의 빼어난 절경과 생동하는 기운은 우리 선조의 찬탄과 경외 속에 시와 그림으로 담아냈다. 이 책은 고려 이후 조선시대까지의 금강산도 성격과 내용, 회화적 특징을 통해 금강산을 둘러싼 당대의 문화와 미술의 성격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 노영 <담무갈보살현신보>(부분) 1307년.
· 정선 <금강전도> 1734년.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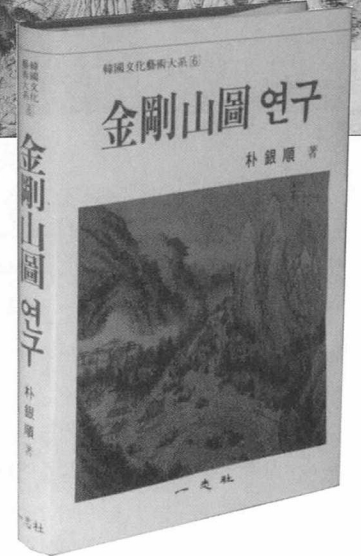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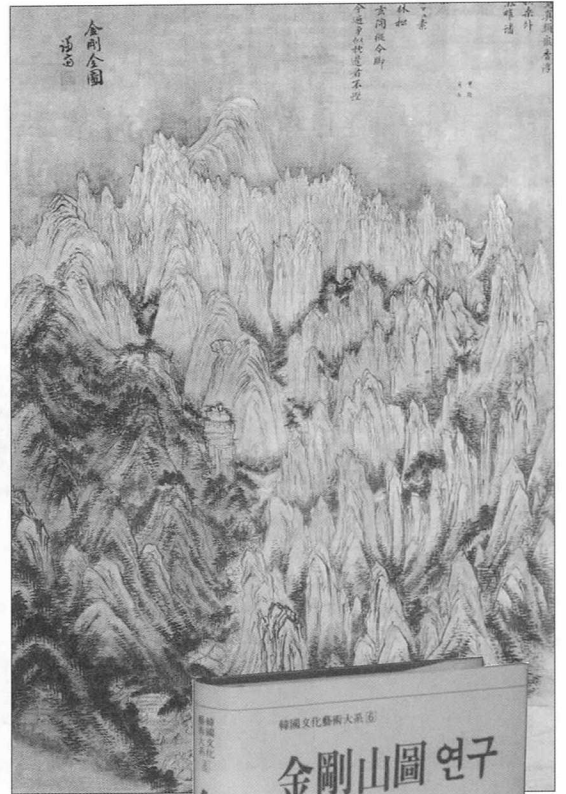
금강산을 포함한 관동지역 유람의 기행가사가 많았다. 그리고 18세기 기행가사문학과 회화적 표현이 어우러진 '진경산수화'로 열매를 맺기에 이른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강산 그림으로는 1307년(충렬왕33)에 노영(魯英)이 그린 <담무갈보살예배도(曇無竭菩薩禮拜圖)>에서 나타난다. 고려 태조가 금강산 배첩에 올랐을 때 담무갈보살과 그 권속이 현신하자 예배하는 장면을 그린 것인데, 금강산의 뾰족뾰족한 여러 봉우리들이 고려시대 화풍으로 표현돼 있다.

조선 중기에 이르면 문인화가, 직업화가들이 여행하고 그림을 제작하는 일이 성행한다. 전도식(全圖式) 표현을 거부하고 자신의 견문을 그대로 표현하는 화첩식 표현을 새롭게 추구하기도 했다. 또 시간의 전개와 여정에 따른 '기행사명도'의 표현도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하였다. 금강산과 관동지역을 여행하던 문인은 기행록을 꾸미고 그 내용을 담아 '사경산수화'를 첨가한 시서화 합벽첩(合璧帖)을 만들기도 했다.

독특한 양식의 진경산수화로 예술관 구현

조선 후기에 이르면 금강산의 예술적 표현은 더욱 풍성해진다. 유행처럼 다량으로 그려진 진경산수화는 독특한 성격과 양식을 형성했다. 그 가운데 김홍도의 <해산도>는 새로운 화풍을 제시했는데, 사실적 사생을



위주로 하되 서양의 원근법, 명암법을 응용한 진보적인 예술관이 구현됐다.

겸재 정선(1676-1759)은 진경산수화풍을 정립시킨 선진적 화가였다. 정선은 30대부터 80대까지 꾸준히 금강산과 관동지역을 그렸다. 일종의 회화식 지도와 같은 <금강전도>를 많이 그렸으며, 특정 경물을 부각시켜 화면이 팍 차도록 구성하는 특유의 조형성과 필묵법을 구사했다. 정선은 대상의 천취(天趣)를 잘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때로는 경물을 과감히 생략하거나 교묘하게 재구성하기도 했다. 정선이 금강산을 그리며 발견한 한국적 지세와 천취에 대한 조형법은 개인 양식뿐 아니라 18세기 진경산수화를 대변하는 양식이었다.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정선의 시대와는 다른 다양성이 표출되었다. 강한 필묵법을 구사한 현재 심사성, 차분하고 부드러운 개성을 지닌 김윤겸, 진보적 사상으로 새로운 화법에 대한 실험정신이 충만했던 표암 강세황, 금강산을 상세하게 탐색하듯 표현한 정수영 등은 독특한 남종화풍의 금강산도를 그렸다.

18세기 후반 김홍도는 정조의 명을 받고 금강산의 실경을 새로운 개념의 사실화법으로 그려내어 주목된다. 비단에 수묵으로 그린 <해산도첩>은 그 전에는 다루지 않은 명연담·비봉폭·금란굴·영랑호를 다뤘으며, 선묘를 위주로 경물의 형태를 세밀하게 묘

사하거나 공간의 깊이와 넓이에 대한 관심이 뚜렷하게 부각되는 등 이전의 금강산도와 전혀 다른 화풍을 이끌었다.

사실적인 서양화풍의 금강산도는 김홍도 이후 기하학적인 원근투시도법, 입체적 표현법의 서양화풍을 보인 강희연, 사실적인 표현을 중시한 김하중·이풍익·이의성 등으로 이어졌다. 19세기 금강산도는 객관적인 형이의 추구를 포기하고 깔끔하고 투명한 분위기를 표출하였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 금강산도는 당대의 대가와 무명 문인화가는 물론 서민층에게까지 폭넓게 수요되는 민화로 다량 제작되기도 했다.

금강산은 한국적인 예술표현의 전통을 추구하는 데 적합한 대상이었다. 금강산도가 오랜 기간 항상 새로운 화풍으로 그려진 것은 '금강산' 자체에 대한 선조들의 마음이 언제나 존재했기 때문이다. 신비한 지질과 장대한 형세의 금강산은 종교적 성지와 여행의 보고로 인식되었고, 정형화된 틀 속에서 우리 민족의 사상과 정서를 담아내는 터전이 되었다.

— 김지원 기자

일지사/A5신/438면/20,000원